

2026 봄과 여름 **고창!**
문화를 읽는 창



고창의 가치를 잇다, 문화의 내일을 열다

CARRYING GOCHANG'S LEGACY FORWARD,
SHAPING THE FUTURE OF CULTURE



재단
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vol. **14**



재단
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소식지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窓)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 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26 봄과 여름 고창! 문화를 읽는 창

발행일 2026년 8월 7일

발행처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발행인 심덕섭

편집인 조창환

기획 설희

사진 고창문화관광재단

인쇄 주식회사 윤디자인

등록일 2020년 12월 15일

등록번호 제고창-바-00100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 3층

전화 063-561-1110

홈페이지 www.gctf.or.kr

I S S N 2733-9971

- 기획 06 고창 꽃정원 활성화
들녘에 피어난 정원, 고창의 내일을 열다
- 10 방장산에서 시작된 생태관광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 생물권보전지역 사업 4년 연속 선정
- 대화 14 붓끝에 남은 바람, 초서로 흐른 한 생애
한옥복합문화공간에서 만나본 서예가 진학중
- 18 고창의 빛 아래, 기록은 다시 삶이 된다
고창황윤석도서관 이야기
- 여행 22 벚꽃길에서 만난 고창의 봄
2026 봄날 치유마실 벚꽃축제
- 26 견고 머물고 싶은
고창 서해랑길 41코스
- 소식 30 주민의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평생학습관
- 32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예체험
고창 전통예술놀이 한마당



소식 36 고창의 전통문화, 전국 우수사례가 되다
2026 지역상생 문화동행 페스타 지역문화 우수사례

38 문화인력 활용 및 양성사업 '나의 프로필'

40 '고창 소용포 봉수' 학술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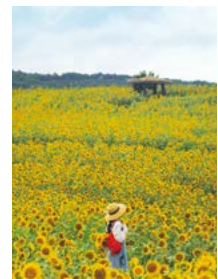
42 지역을 넘어 함께 만드는 전북 관광
전북권 기초관광재단 업무협약

44 백화제방, 문화가 꽃피다
2026 치유문화도시 고창 컨퍼런스 "백화제방"

홍보 46 계절마다 새로워지는 고창의 미디어 사계
선운미디어갤러리

48 고창이·모량아·모로모로
고창 캐릭터, 관광 굿즈로 다시 태어나다

50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제 14호 표지 이야기

고창 학원농장에 펼쳐진 여름 해바라기 들판. 봄에는 푸른 청보리가 물결치고,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황금빛 풍경을 이루며, 가을에는 메밀꽃과 코스모스가 들판을 수놓는다. 계절마다 새로운 색과 표정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학원농장 속 고창의 아름다운 순간을 담았다.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

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장입니다.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여름,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고창! 문화를 읽는 창」 제14호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고창은 시간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가치를 만들어 온 도시입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부터 세계가 인정한 갯벌과 생물권보전지역,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은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소중한 자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고창군은 국내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한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이며, 세계유산도시이자 생태관광도시 고창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가는 문화와 자연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와 관광의 가치를 더해,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창의 가치를 잇다’는 이번 호의 주제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창만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이번 소식지가 고창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문화를 잇는 이야기의 힘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잠시 걸음을 늦추고 한 권의 책을 펼치듯 「고창! 문화를 읽는 창」 제14호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한 권의 소식지를 만드는 일은 고창의 곳곳을 다시 만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익숙했던 풍경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니 새로운 의미를 품고 있었고, 오래된 문화도 오늘의 삶과 만나며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이 간직한 생태의 가치와 아름다운 꽃정원, 역사와 기록을 품은 고창황윤석 도서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서예가 진학중 선생의 삶과 예술, 그리고 문화와 관광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모두 고창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특별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며,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군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고창의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그늘처럼, 이번 소식지가 여러분께 작은 여유와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창 꽃정원 활성화 들녘에 피어난 정원, 고창의 내일을 열다

민·관 유관기관 협업 중심의 고창 꽃정원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성과에 부쳐
농업 중심의 평야 지대였던 고창의 들녘이 최근 화려한 ‘정원문화 산업’의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창군은 민선 8기 군정 방침에 발맞추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평야 지대의 지리적 특성과 기존 농업 중심의 자원을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전환하는 ‘정원문화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설정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적 선택이라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고창군청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와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팀은 전문성 기반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난 2026년 4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고창 꽃정원 일원에서 봄꽃 축제 및 제4회 고창 벚꽃축제와 연계한 ‘고창 꽃정원 활성화 행사’를 성황리에 완수하였다. 본 고에서는 대내외적 정원 산업의 여건 분석과 장소적 특성을 짚어보고, 세부 사업별 운영 성과와 향후 고창군 정원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제언을 종합하고자 한다.





현대 대한민국은 이른바 ‘정원문화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정원문화의 체계적 진흥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을 시행하며 전국적인 정원 지정제를 추진 중이며, 산림청 역시 전담 준정부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통해 권역별 인프라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흐름 속에서 지자체 간의 선점 경쟁 또한 심화되는 양상이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선점한 가운데, 인접 장성군 역시 황룡강 정원의 지방정원 등록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근 지자체의 도전이 거세다.

이에 대응하여 고창군은 천만 관광객 유치 조기 달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로서 고창 꽃정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제는 명사십리, 하고리 왕버드나무 숲 등 군 전역에 산재한 잠재적 생태 자원을 연계하여 고창 꽃정원의 대외적 인지도를 단숨에 전인해야 할 시점이다.

조선시대 대표 읍성인 고창읍성(등양루) 및 노동저수지 등 고창군의 핵심 관광 거점과 물리적으로 직결되어 동선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는 공원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행정적 결단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해 대형 공공미술 조형물 설치를 통해 초석을 다진 고창 꽃정원은, 이번 벚꽃축제 기간 동안 유입된 대규모 인파의 동선을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다.

초기 조성 단계에서 제기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사는 뉴미디어와 트렌디한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신생 정원으로서의 낮은 인지도와 편의시설 미비라는 약점(Weakness)을 극복하고, 중앙정부의 진흥 기조라는 기회(Opportunity)를 포착하기 위해 도입된 ‘PASTA’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협업의 우수한 귀감이 되었다.

01

정원문화 산업의 대내외적 여건과 고창의 좌표



02

공간적 연계성과 전략적 방법론(PASTA)의 가동



03

다감각적 정원 체험 프로그램의 학술적·실천적 성과

이번 행사는 정원 내 부스 운영 및 소모품 수급 시 관내 화훼 농가와 청년 창업농, 예술인 단체를 최우선 지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였다. 나아가 국립장성숲체원 등 국가 생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공신력을 확보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방명록 서명자 기준으로 집계된 핵심 성과는 아래와 같다.



초록 교환소 (스탬프 투어)

탐방객 500명 참여
반려식물 화분 증정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

꽃차 체험 및 시음회

관내 청년 창업농 주도
유기농 식용 꽃차의 생태적
효능 안내 (231명 참여)

가든 속 산림치유

문수산 변백림 인프라 연계
항균 팔찌 제작 및 산림치유
교육 (187명 참여)

구절초 씨앗폭탄 만들기

환경교육센터 주관, 자연 파종
및 생태 복원 프로세스 교육
(120명 참여)

튤립 정원 페이스아트

미술협회 고창지부 협업
전통 문양을 가미한 친환경
미술 제공 (120명 참여)

튤립에 물든 솔향

정원 내 소나무 군락의 솔향을
활용한 천연 향수 제작 클래스
(99명 참여)

고창 힐링 코디얼 만들기

메리골드 기반 서양식 천연
농축 주스 제조 공정 체험
(64명 참여)

튤립 속 압화 액자 체험

청년창업 가정 업체 참여
예술 치유 연계 프로그램
(60명 참여)

펫 뷰티 살롱 및 펫티켓 교육

귀하청년 업체 주관
반려인 대상 현장 교육 수행
(24가구 참여)

아울러 광주전남숲해설가 모임 및 관내 효사랑주간보호센터의 치매 노인을 초청하여 진행한 ‘정원 전문 원데이 클래스’는 원에 자극을 통한 복지 원에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정원의 공익적·사회적 치유 기능을 실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04

문화예술적 자산의 융합과
대외 홍보망 구축

행사장 내 마련된 ‘미니 카페테리아’는 청년 기업 및 바리스타 동아리 학생들과의 협업으로 운영되어 음료를 제공, 체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기존 정원 내 계비온(철망 돌담) 구조물을 감성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포토존’은 외지 플래너의 손길을 거쳐 정원의 미학적 가치를 높였으며, 고인돌 농악단의 전통 길놀이와 고고장구의 재능기부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를 타깃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162명에 달하는 가망 고객을 확보한 점, 그리고 국립장성숲체원을 비롯한 광역 거점 10개소에 사전 홍보 배너를 설치하여 유입 경로를 다각화한 점은 행정의 기획력이 돋보인 대목이다.



05

정원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제언과 미래 비전

금번 행사는 기상 악화(강풍주의보)에 따른 운영 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총 2,031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나, 향후 정원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 또한 남겼다. 첫째, 내부 공간의 교목성 그늘 부족으로 인한 차양 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주차장의 비포장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파쇄석 부설 또는 친환경 잔디 블록 포장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정온(靜穩)해야 할 치유 정원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향후 공연 콘텐츠는 전통 음악 보다는 어쿠스틱 및 클래식 중심의 정원 음악회로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펫 가드닝의 수요 확충에 발맞추어 목줄 미착용 등 안전 위협 요소를 통제할 ‘펫티켓 단속 요원’ 배치와 초상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금번 행사의 계량적 성과와 협업 수범 사례가 고창의 봄철 메가 축제 간의 유기적 동선 연계에 확고한 당위성을 제공하기를 바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정원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글 김태환 · 사진 김민찬



방장산에서 시작된 생태관광의 새로운 길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공모사업 4년간 확보

공모사업에 있어서 형평성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전년도 사업의 확실한 전략 기획 방식의 전환으로 월등한 성과를 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에도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에 전년도 성과를 위주로 돌아보고 2026년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방장산 권역 분야별 대표 깃대종 안내

- 식물 분야 : 삻쪽나리 (산정 및 계곡부 분포, IUCN LC 등급)
- 포유류 분야 : 담비 (능선 및 계곡부 내 배설물 및 무인센서카메라 다수 포착)
- 조류 분야 : 황조롱이 (산림, 저수지 등 권역 내 광범위 서식 확인)



사진. 하정옥(추적자학교)



2025년 성과

2023년과 2024년에는 스토리텔러 양성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단순 인력 양성 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적과 고창의 생물권보전지역을 살리지 못한다는 심사평이 2년간 누적되었다. 하여 고창의 생태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였다.

고창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그간의 생태보전 정책은 운곡탐사르습지, 동림저수지,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고인돌공원 등 5대 핵심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생태계의 유기적 연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구역을 둘러싼 완충구역 및 전이지역으로의 범위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고창문화관광재단은 단순 인력양성과 일회성 행사에 치중했던 기존의 추진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유관기관 협업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전개하였다.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집중 추진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방장산 활성화 사업'의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평어체 판보 스타일로 기술한다.

방장산 일원의 생태·지리적 여건 및 분석

방장산(743m, 면적 2,433ha)은 노령산맥과 영산기맥에 위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의 도계(道界)를 이루는 동시에 고창군, 정읍시, 장성군의 경계를 형성하는 요충지이다. 방장산 갈곡천에서 발원한 동림저수지는 '핵심구역', 고창읍 및 신림면 등 인접 생활권은 '전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의 3대 용도구역이 긴밀하게 연계된 구조를 띤다.

고창군이 추진 중인 '솔재생태축복원사업' 및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과 맞물려 있어 체계적인 기초 데이터 축적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었다.

5대 핵심 사업별 주요 성과

방장산 자연환경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재단 총괄 하에 관내외 식생 전문가 및 유관기관 체계를 연계하여 완충구역(방장산 일원)과 전이지역(생활권 임지 3개소)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하였다.

완충구역(방장산) 조사 결과

식물 분야에서는 총 454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과거 기록을 포함하여 총 600종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희귀식물 7종(약난초 등)과 특산식물 6종(은평의다리 등)이 발굴되었으며, 깃대종으로는 삿갓나리가 선정되었다. 동물 분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국내 희귀종인 무산쇠족제비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2급인 담비(깃대종), 삺, 하늘다람쥐 등 총 15분류군의 포유류가 포착되었다. 조류 분야는 신림저수지 일대를 중심으로 황조롱이(깃대종)를 포함한 총 143분류군이 관찰되었다.

전이지역(인접 산림) 조사 결과

고창읍 생활권 및 선운산 연결축인 성산(211종), 나들목공원(131종), 갯당산(142종)에 대한 식물 조사를 완료하여 소나무 우점림 등 구체적인 식생 구조를 규명하였다.



주민 참여형 「방장산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운영

2025년 10월 19일, 전문가와 군민, 관광객 등 총 96명이 참여한 주도형 탐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솔재, 노동저수지, 양고살재 등 방장산 고창권역 전역에서 실시간 조사가 이루어졌다. 탐사를 통해 발견된 식물 177종, 포유류 11종, 조류 143종, 곤충류 73종의 생물종은 모바일 전산 지도(네이처링) 플랫폼에 직접 등록되어, 민간 참여형 생태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의 모범 사례를 확립하였다.

연구 및 홍보 단행본·안내책자 발간·보급

지역 활동가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방장산의 생태·인문학적 가치를 집대성한 기록물을 발간하였다.

단행본 「키워드로 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방장산」(600부)

역사·문화 20개, 식물 42개, 조류 44개, 곤충 122개, 포유류 5개 등 총 233개의 핵심 키워드로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관광 안내책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방장산」(1,500부)

산악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 등산로·둘레길 지도와 대표 생물종 정보를 수록하였다.

공간정보 플랫폼(지도 앱) 기반 디지털 접근성 개선

탐방객의 인지 편의성과 생태관광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주요 역사문화유적지 및 관광 거점의 위치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 이식하였다. 쓰리봉, 정산사, 월촌생활사박물관, 치유의숲 주차장·전망대, 양고살재 전망대 등 총 6개소의 정확한 세부 주소와 명칭을 구글 지도 및 카카오맵에 등록하여 탐방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언론 및 대외 홍보 성과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공모사업 선정(4건) 및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성료(5건)와 관련하여 민주신문, 뉴시스,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더팩트, 중도일보 등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총 9건의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고창 방장산의 생태 관광·산림교육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널리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원천 데이터와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고창군 군정 전반의 생태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 현업 부서와의 정책 연계

고창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자연생태원’ 건립 시 방장산 상설전시관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산림녹지와 유아숲체험원의 생태감수성 프로그램 컨설팅에 본 조사 데이터를 적극 반영한다.

광역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립장성숲체원 등 전문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지속하여 2027년까지 군민과 관광객을 아우르는 정형화된 산림교육 체계를 정립한다.

생물권보전 완충지역의 외연 확대

차년도에는 본 사업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단풍나무 식생이 우수한 문수산 권역으로 공모 확대를 추진하고, 고창군의 핵심 수생태 축인 인천강 일원의 생태관광 기초 기획 사업을 도출하여 ‘핵심구역과 완충·전이 지역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의 롤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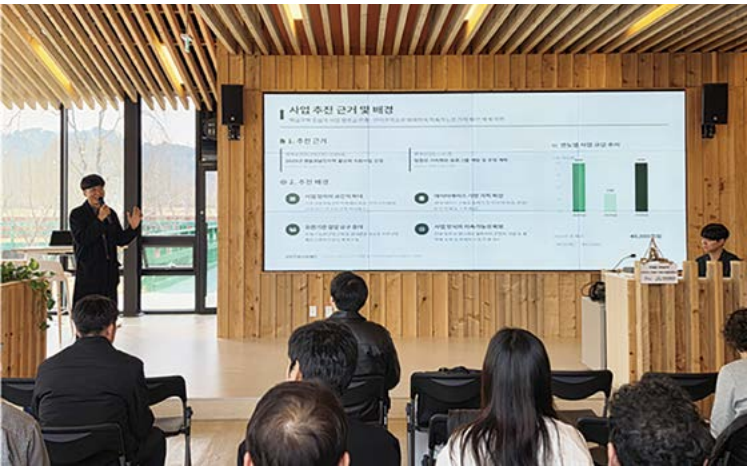


사진. 유네스코MAB사무국

2026년 사업 추진 방향

방치된 소택지의 생태학적 가치 재발견

고창군은 평야 지대의 특성상 과거 농업용 저수지가 다수 축조되었으나, 농업 쇠락에 따라 소택지(늪지) 형태로 자연 복원되는 천이 과정에 있다. 이에 대한 정밀 현황 파악 및 자원조사가 시급하다.

주민 자체 발굴 성과의 전문성 보완

2026년 2월, '고창군 생태환경주민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관내 44개소의 소택지 위치를 자체 발굴(상갑리 소택지, 금척제, 낙양리 소택지 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문 데이터 구축과 가치 확산을 위해 학술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모델 정립

국가 MAB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단발성 인력양성을 넘어 주민이 수익을 창출하고 보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

소택지 인문·자연환경 정밀 조사(학술연구용역 용역 연계)

재단, 자원 전문가, 유관기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소택지 거버넌스 협의체'를 가동한다. 식물·어류·조류·포유류 등 4개 핵심 생물 분류군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와 소택지 주변 마을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수집하는 인문 아카이빙을 동시 추진한다.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사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한다. 고창군환경교육센터(민)와 재단(관)이 연계하여 운영하며, 해설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및 관내외 주민 대상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국가 프로그램 인증 및 교육청 연계 확산

프로그램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및 산림청의 '국가 프로그램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또한 고창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택지 생태 학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관광 안내 가이드 및 홍보 콘텐츠 개발

정밀 조사 결과를 집대성하여 환경교육사 교육용 '소택지 도감'을 발간한다. 이와 함께 소택지 주변 관광 동선을 수록한 '관광 팸플릿'을 제작·배포하고, 타 생물권보전지역 지자체를 순회하는 '생물종 사진전(방장산 자원 포함)'을 기획하여 고창의 생태적 우수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글 김태환 · 사진 김민찬



붓끝에 남은 바람, 초서로 흐른 한 생애

초서체의 대가 최운 진학종의 삶과 작품 세계



최운 진학종

翠雲 陳學鐘 JinHakjong

1924~2010

작가 소개

1924년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서 출생. 진의종 전 국무총리의 친동생이다. 그는 60여 년 동안 고집스럽게 서예에 몰두해 왔으며 병풍과 전각 액자 등 100 여 점을 모아 대형 작품집 '최운 초서 병풍첩 (1997, 홍익재)'을 발간했다. 수십 차례에 걸쳐 국내 개인전을 가진 것을 비롯하여 중국 상하이 한중 합동전, 일본 신문 협회 초대전, 홍콩 초청작가전 등 해외 작품전에 참가하였다. 제3회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2001년)에 초대된 바 있으며, 서울 미술제, 대한민국미술 대상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국전 초대작가, 예술의 전당 초대작가, 세계서법예술연합고문, 대한민국 초서심추회 회장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다 2010년에 작고하였다. 범태평양 미술대전 초대작가상과 싱가포르 공익부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출처:한국매일

획은 빠르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먹은 번지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취운 진학중은 초서를 단순한 글씨가 아닌, 삶의 속도와 사유의 깊이를 담아내는 예술로 끌어올린 서예가였다.



초서는 서예의 마지막 문장처럼 보인다. 글자의 형체는 풀 어지고, 획은 이어지며, 종이 위에는 속도와 호흡만이 남는다. 그러나 진정한 초서는 흐트러짐이 아니라 단련된 질서다. 빠르게 쓰되 무너지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취운 진학중의 글씨가 오래 눈길을 붙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초서는 단순히 먹을 부린 필획이 아니다. 먹의 농담, 붓의 탄력, 획과 획 사이의 여백이 한 사람의 삶과 수련을 증명한다. 한 획은 지나온 시간이고, 이어지는 선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다.

그의 작품집 표지와 자료에는 ‘초서는 서예의 꽃’이라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초서가 모든 서체의 기술을 품고 있으면서도, 결국 작가의 정신과 호흡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취운 진학중은 바로 그 초서의 세계를 평생의 언어로 삼았다.

동아갤러리 초대전

KBS한국방송공사 초대전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초대전

MBC문화방송 초대전

CBS기독교방송 초대전

싱가포르공화국 공익부 장관 공로표창장 수상

광주일보 초대전, 롯데백화점 초대전

전북예총 초대전, 전남예총 초대전

전북도민일보 초대전, 대전일보 초대전

서울신문사 초대전, 무등일보 초대전

주한일본대사관 초대전

각급 서예공모전 심사위원 다수 역임

중국 상하이·선양 한중합동전

한국일보사 주최 백상기념관 초대전

한태평양미술대전 상임고문

한국보훈복지공단 고문 역임

일본 도쿄 동양경제일보 고문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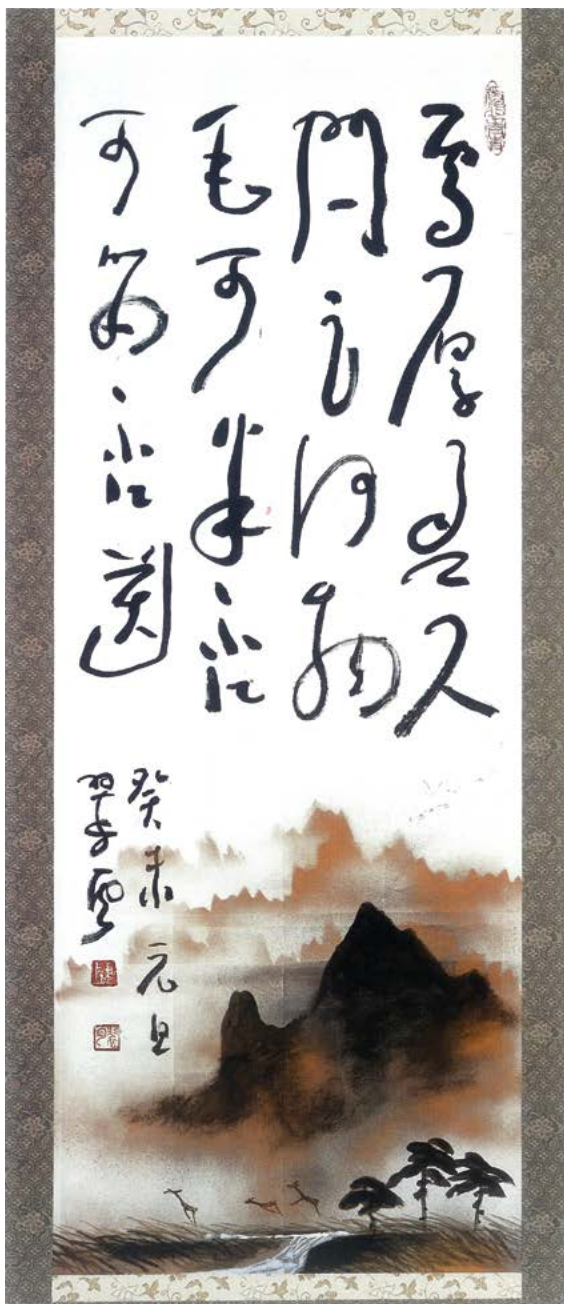
일본 오사카 교도신문 상담역 역임

한국전력공사 간부 역임

저서: 『취운 초서 병풍첩』, 『서예작품집』



長恨歌 / 1950×600mm



雪厚盈尺問足何物
毛可米否可留否送

눈이 한 자나 쌓인 겨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구절이다. 추위와 가난, 머뭇거리고 떠남 사이에서 인간의 처지를 돌아보게 한다.

한 획을 얻기 위해, 한 생을 버리다

서예가의 삶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반복과 긴장이 있다. 먹을 갈고 붓을 들며 종이를 마주하는 시간은 자신을 다듬는 수행에 가깝다.

취운 진학종의 예술 역시 긴 수련 위에 세워졌다. 그의 이력은 한 지역 작가의 범위를 넘어선다. 방송과 언론 소개, 국내외 초대전, 한·중·일 서예 교류, 서예단체 활동과 심사 경력은 그의 글씨가 넓은 무대에서 평가 되고 교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걸어온 길에서 중요한 것은 ‘명성’보다 ‘지속성’이다. 특히 초서는 획의 골격을 익히고, 고전과 시문을 이해하며, 몸의 리듬과 마음의 균형을 길러야 도달할 수 있는 예술이다.

취운 진학종의 글씨는 유려하고 속도감이 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뼈대가 있다. 획이 흘러가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자형이 풀어져도 품격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초서를 ‘응축된 정신의 형식’으로 완성했다.

속도는 있으나 가볍지 않고, 자유로우나 흐트러지지 않는다

취운 진학종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선의 흐름이다. 그의 초서는 획과 획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글자와 글자가 서로 기대며 화면 전체의 리듬을 만든다. 가까이서 보면 한 획의 떨림이,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바람 같은 움직임이 느껴진다. 「壽如泰山」과 「深思高舉」는 그의 필력이 압축된 횡액 작품이다. 큰 글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획의 굵기와 방향, 멈춤과 밀어냄이 치밀하게 조율되어 있다. 장수와 덕, 깊은 사유와 높은 뜻은 단순한 문구를 넘어 작가가 추구한 삶의 태도로 읽힌다. 병풍 작품에서는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난다. 「長恨歌」와 「愛蓮說」 같은 고전 시문은 글씨를 넘어 하나의 문학적 공간이 된다. 긴 문장은 초서의 흐름 속에서 물결처럼 이어지고, 여백은 문장의 숨결을 받아낸다. 초서는 읽히기 이전에 느껴지는 글씨다. 취운 진학종의 초서는 글자의 뜻을 넘어 붓이 지나간 시간과 작가의 호흡을 전하며, 전통 서예의 형식 안에서 현대적 감상까지 열어 보인다.

취운 진학종의 초서는
종이 위의 글씨가 아니라,
지금도 읽히고 움직이는 정신의 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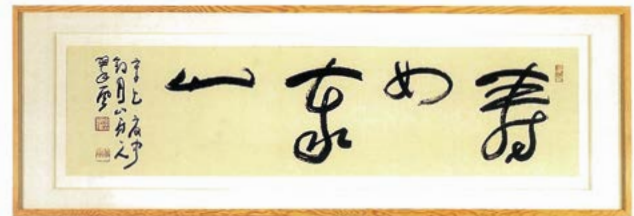
한 예술가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과거의 업적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늘의 눈으로 다시 보고, 다음 세대가 이어갈 가치를 찾는 일이다. 취운 진학종의 작품을 다시 펼쳐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초서는 전통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전 시문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화면 구성과 필획의 움직임에서 강한 조형성을 드러낸다. 글씨에는 문장의 뜻이, 선과 여백에는 예술적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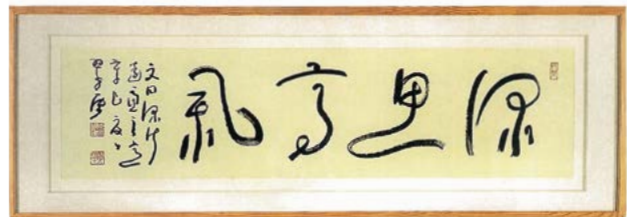
디지털 문자가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손으로 쓴 획의 온도는 더욱 특별하다. 취운 진학종의 초서에는 오랜 수련, 엄격한 법도, 먹빛에 깃든 한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가 남긴 작품은 한 시대의 붓끝이 남긴 문화적 자산이다. 취운 진학종을 다시 읽는 일은 곧 초서의 아름다움과 우리 서예문화의 품격을 발견하는 일이다.

글 이정관



壽如泰山 / 장수와 덕을 향한 바람을 담은 작품



深思高舉 / 신중한 성찰과 큰 뜻을 품은 삶의 태도를 담은 작품



長恨歌 / 1950×600mm

대화



고창황윤석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빛과 나무, 사람과 기록이
함께 머무는 문화의 장소다.
높은 천장 아래로 스며드는 자연광,
목구조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결,
자유롭게 이어지는 열린 서가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책을 넘어 사람을 품고,
기록을 넘어 고창의 미래를 그려가는
현장에서 고미숙 과장을 만났다.



고창의 빛 아래, 기록은 다시 삶이 된다

고미숙 문화예술과장이 들려주는 고창황윤석도서관 이야기

안녕하세요, 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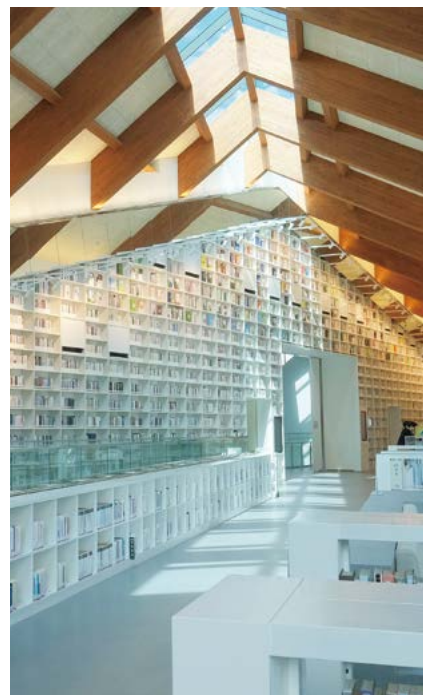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고창군청 문화예술과장 고미숙입니다.
현재 고창군에 있는 공공도서관 2개소와 작은도서관 7개소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먼저 고창황윤석도서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도 궁금합니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은 2025년 12월 3일 개관한 고창군의 대표도서관입니다. 이름은 군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고창을 대표하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재 황윤석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자 붙여졌습니다. 황윤석 선생은 『이재난고』라는 방대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 기록 안에는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와 문화, 지역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도 이러한 기록정신을 이어받아,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과 사람의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현준 건축가의 설계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한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목구조 공간이다 보니, 외관을 보고 놀라고 내부에 들어와 다시 한 번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높은 천장과 나무 구조, 자연광이 어우러지는 분위기가 일반적인 도서관과 다르다는 반응을 자주 듣습니다. 개관 이후 평일에는 500~600명, 주말에는 1,200~1,3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들르며, 고창 여행 중 꼭 한 번 들러보고 싶은 문화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도서관 안에서 특히 추천하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가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공간은 2층에 있는 책마루 테라스입니다. 이곳에서는 1층과 2층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고,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북마운틴 서가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잠시 앉아 도서관 전체의 분위기를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이 공간에 있으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이 꽂혀 있는 시설이 아니라, 빛과 나무, 사람과 책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의 열린 공간 구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희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책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가 사이, 계단, 창가, 테라스 등 도서관 곳곳에서 책을 읽고 설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 구성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 자체를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책과 친해지는 놀이터가 되고, 청소년에게는 생각을 넓히는 공간이 되며, 어른들에게는 쉬면서 배우고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서관은 여러 세대가 함께 머무는 열린 거실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문화 안에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길 기대하시나요?

요즘 도서관은 조용히 책만 읽는 공간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기본이고, 강연을 듣고, 전시를 보고, 이웃과 만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창황윤석도서관도 그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찾고, 편하게 머물고, 자연스럽게 문화 활동에 참여할 때 지역문화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특강, 인문학 작가와의 만남, 어반스케치 입문 강좌,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고창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도서관과 고창 읽기'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대와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도서관이 고창 사람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문화 체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은
책을 넘어 사람과 문화가 머무는 열린 공간이다.

황윤석 선생의 기록정신은
이곳에서 오늘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도서관은 고창을 읽고 기록하는 도시로
천천히 이끌어가고 있다.

황윤석 선생의 기록정신을 오늘의 고창과 어떻게 연결하고 싶으신가요?

황윤석 선생의 기록은 단순한 개인의 일기가 아니라, 한 시대와 지역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름에 담긴 의미도 단순히 인물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남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기록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인에게는 독서와 인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이 ‘읽는 고창’, ‘기록하는 고창’, ‘생각하는 고창’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창황윤석도서관이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기 역되었으면 하시나요?

고창황윤석도서관이 고창 군민 누구나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 잠시 쉬어가는 사람, 아이와 함께 온 가족, 강연을 들으러 온 주민, 고창을 여행하다 들른 방문객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은 도시의 거실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편히 앉아 쉬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책 한 권, 문장 하나, 공간의 기억 하나를 마음에 담아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도서관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이정관 · 사진 정혜윤





벚꽃길에서 만난 고창의 봄

2026 봄날 치유마실 벚꽃축제



고창의 봄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인 '2026 봄날 치유마실 벚꽃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석정지구 일대에서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진행된 이번 축제는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온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기는 '치유형 봄마실'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준비한 따뜻하고 여유로운 봄날의 추억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벚꽃 만개와 함께 열린 따뜻한 봄마실

올해 봄, 고창 석정지구는 만개한 벚꽃길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2026 봄날 치유마실 벚꽃축제'는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시기에 맞춰 진행되어, 도착하는 순간부터 눈과 마음이 환해지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국악, 가요, 기타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져 은은한 봄바람과 함께 감미로운 사운드가 흐르는 가운데,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발길을 멈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부모님, 연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세대와 관계를 아우르는 '가족·커플 맞춤형' 봄 축제로 기억되었습니다.





스탬프투어와 피크닉존, 즐길 거리 가득

이번 축제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는 ‘스탬프 투어’였습니다. 벚꽃축제 구석구석을 걸으며 스탬프를 찍고 모으면 고창문화관광재단의 특별 굿즈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적극 참여하며 축제를 더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축제장에 마련된 ‘벚꽃정원’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몽골천막을 설치해 봄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피크닉 매트와 간단한 물품 대여 서비스도 운영되어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편안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을 위한 푸드트럭이 다양하게 준비되었으며, 특히 벚꽃 색깔을 담은 ‘핑크 붕어빵’을 비롯한 간식거리들이 무료로 제공되어 따뜻한 봄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고창의 봄을 기억하는 치유의 시간

‘벚꽃정원’이라는 이름처럼, 이번 벚꽃축제는 보고, 걷고, 먹고, 쉬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창의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고창의 봄을 제대로 느꼈다”는 방문객들의 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축제를 찾은 한 가족은 “아이들이 스탬프투어를 하느라 신나서 뛰어다니고, 우리는 몽골천막 아래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벚꽃을 즐겼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연인들은 버스킹 공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고, 지역 주민들 역시 “고창의 봄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하고 새삼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절마다 고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치유마실’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글 한인호 · 사진 김민찬



걷고 머물고 싶은 고창 서해랑길 41코스

고창 서해랑길 도보 탐방 코스는 총 5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고창군 관내를 지나는 구간은 3개 코스(41코스, 42코스, 43코스)이다.
3개 코스 모두 각각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나, 그중 41코스는 고창의 3개 면을 관통하는
총연장 19.1km 구간으로 곳곳마다 우수한 관광 자원을 품고 있다.

구시포 해수욕장

서해의 품에 안긴 고창은 언제나 넉넉한 풍경으로 여행자를 맞이하지만, 그중에서도 상하면에 위치한 구시포 해수욕장은 유독 특별한 낭만을 품고 있는 곳이다. 약 1.7km에 달하는 드넓은 백사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시원하게 뻗어 있으며, 고운 모래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부드러운 감촉을 선사한다. 이곳은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깊지 않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물론, 번잡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휴식처가 되어준다.

바다 너머로 시선을 돌리면 덩그러니 떠 있는 작은 섬, 가막도가 눈에 들어온다. 이 가막도를 배경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구시포의 낙조는 그야말로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와 같다. 하늘과 바다를 온통 황홀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는 순간은 서해안 그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절경을 자랑한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마다 인생에 남을 명장면이 탄생한다.

게다가 구시포 해수욕장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바다에 그치지 않는다. 해변 바로 곁에는 국가어항인 구시포항이 자리하고 있어, 사시사철 싱싱한 제철 수산물을 맛보는 식도락의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다. 철마다 잡아 올린 신선한 조개구이나 풍성한 해산물 요리는 여행의 만족도를 배가시킨다.

더불어 인근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광활한 고창 갯벌이 펼쳐져 있어, 자연의 신비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생태 관광의 매력까지 더해진다. 고운 모래사장 and 시원한 송림, 가슴을 울리는 낙조와 풍성한 먹거리까지 갖춘 구시포 해수욕장은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언제 찾아도 늘 새로운 위로와 영감을 건네는, 서해안이 감춰둔 보물 같은 휴양지이다.



명사십리

최근 트렌디한 여행지로 주목받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는 숨은 생태 관광 자원인 ‘명사십리(明沙十里)’ 해변이 있다. 모래가 우는 해변으로 알려진 타 지역의 명사(鳴沙)십리와 달리, 고창의 명사십리는 맑고 고운 모래가 약 4km에 걸쳐 펼쳐져 있다는 뜻의 ‘밝을 명(明)’ 자를 사용한다. 그 명성에 걸맞게 해변의 사질(沙質)이 매우 미세하고 부드러우며, 햇살에 반사되어 빛나는 은빛 백사장은 수려한 시각적 경관을 자랑하여 서해랑길을 걷는 탐방객들에게 최고의 백미를 선사한다. 이 광활한 백사장은 오랜 시간 바람과 파도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우수한 자연 유산이다. 서해안 특유의 완만한 경사 덕분에 썰물 시 갯벌과 지형이 대규모로 노출되며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탁 트인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깊은 정서적 안정감과 심신 치유(힐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고창 명사십리는 단단하게 다져진 모래 지형을 갖추고 있어 해안 드라이브와 캠핑(차박)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넓은 백사장을 배경으로 달리는 해안 드라이브는 타 해변과 차별화된 독보적인 체험 활동으로, 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한다.



경관의 최고 정점은 단연 일몰(낙조) 시간대이다. 서해의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면 백사장이 노을빛을 고스란히 반사하여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장관은 방문객과 사진 작가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으로 기능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하고 싶다면, 우수한 생태 경관과 붉은 낙조의 낭만이 어우러진 고창 명사십리 방문을 적극 추천한다.





서해안바람공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에 위치한 ‘서해안바람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 갯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창의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 관광 거점이며, 서해랑길 41코스의 시점으로부터 약 3분의 2 지점에 위치해 있다.

본 공원은 서해안의 풍부한 풍력 자원을 상징하는 대형 풍력발전기와 다채로운 색상의 바람개비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어, 방문객들에게 이국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시각적 경관을 제공한다. 넓게 펼쳐진 잔디광장과 조형물들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이자, 청정 고창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포토존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여름철 계명산 주변에 만개하는 수국 군락은 수려한 장관을 연출한다.

해안선을 따라 체계적으로 구축된 자연 친화적 도보 탐방로(데크길)는 서해안바람공원의 핵심 시설이다. 갯벌 위를 걷는 듯한 독보적인 탐방 경험을 선사하며, 보존 가치가 높은 고창 갯벌의 다양한 염생식물과 흰발농게 등 연안 생태계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우수한 생태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근 마을에서는 다채로운 어촌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된다.

공원 내에 마련된 계명산 ‘바람공원 전망대’는 서해안의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광활한 서해 갯벌과 수평선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명사십리와 마찬가지로 일몰 시각이 되면 서해안 특유의 장엄한 낙조가 공원 전체를 붉게 물들이며, 방문객들에게 깊은 정서적 안정감과 심신 치유(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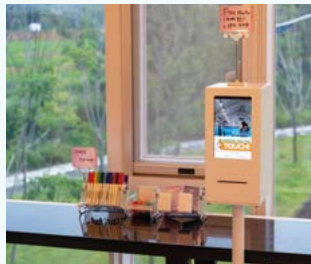
고창 서해랑 쉼터

‘고창 서해랑 쉼터’는 서해랑길(고창 코스) 이용객과 지역 관광객을 위한 거점형 복합 휴식 공간이다.

본 쉼터는 걷기 여행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내부에는 도보 여행객들이 체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편의 시설과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고창군의 주요 생태 관광지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관광 정보 거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즉석 사진기 운영, 완주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문화가 흐르는 서해랑길’을 구현하는 중심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글 김태환 · 사진 고창문화관광재단



구시포의 송림을 지나 동호의 바다에 닿고,
서해안바람공원의 바람을 따라 심원면으로 이어지는 길
서해랑길 41코스는 걷는 이의 속도에 맞춰
고창의 해안 풍경을 천천히 펼쳐 보인다.



주민의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평생학습관

옛 고창군립도서관이 누구나 머물고 배우며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고창평생학습관 안에 새 둥지를 틀고,
군민의 일상과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관광의 가치를 이어간다.



지난 2026년 3월 13일, 고창읍 모양성로 11에 고창평생학습관(MoDu Place)이 문을 열었다. 공부하는 학생들과 책을 찾는 군민들로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옛 고창군립도서관 건물이 전체 리모델링을 거쳐, 이제는 누구나 머물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변화와 함께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도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올해 3월 초, 재단은 고창평생학습관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 사무실이 고창읍내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면, 새 사무실은 고창읍 중심부에 자리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재단이 군민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셈이다.

모두가 머무는 1층, 모두 스터디카페와 휴게쉼터

고창평생학습관 1층은 누구나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에는 스터디카페(MoDu Study Cafe)가, 정면에는 휴게쉼터(Community Lounge)가 자리한다.

스터디카페는 다양한 좌석과 빈백이 마련되어 있어 학습, 독서, 개인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꼭 공부가 아니어도 책을 읽거나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공간으로, 10대





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휴게실터는 편안한 쿠션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기 좋은 자리다. 바로 앞에 모양성이 있어 산책을 즐긴 뒤 들어와 편히 쉬기에 좋다. 배움과 휴식, 산책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이다.

배우고 모이는 2층, 동아리방과 학습실

2층은 집중적인 배움과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동아리방(A Club Room), 집중학습실(Intensive Study Room), 자율학습실(Free Study Room)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리방은 1층 사무실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단체와 모임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집중학습실과 자율학습실은 독서와 공부에 몰입하기 좋은 공간이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모양성 풍경은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야외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어 잠시 차를 마시며 쉬어가기도 좋다.

배움이 부담이 아닌 일상이 되는 곳

고창평생학습관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책을 멀리했던 사람, 조용히 머물 곳을 찾는 사람,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열린 ‘모두’의 공간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이전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문화와 관광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고창읍 한가운데 자리한 새 사무실은 재단이 군민과 더 가까이 만나고, 지역의 문화적 가능성을 넓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재단은 고창평생학습관 안에서 군민과 더 자주 소통하며, 고창의 문화와 관광을 주민의 삶 속에서 함께 키워갈 예정이다.

글 정소현 · 사진 고창문화관광재단



배움이 머무는 곳, 문화가 가까워지는 곳.
고창평생학습관에서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군민의 일상과 더 가까이 만납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예체험 고창 전통예술놀이 한마당

손끝으로 전통을 잇고,
웃음으로 문화를 나누다.
고창읍성과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펼쳐진 사흘간의 공예 문화 축제



지난 6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고창읍성과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일원은 공예 향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공예주간」 권역별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마련된 ‘고창 전통 예술놀이 한마당’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해 큰 호평을 받았던 공예주간 행사 ‘일생공예, 일상공예’의 성공을 잇는 후속 사업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사흘간 1,300여 명에 이르는 군민과 관광객이 다녀가며, 고창의 전통과 공예가 살아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예체험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 행사장 곳곳에 자리한 체험 부스와 각 한옥 동에서는 다양한 공예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무형유산 보유자와 명인이 직접 진행하는 마스터클래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수장 박미애 명인의 '전통으로 땀다'에서는 실과 매듭으로 완성하는 전통 매듭 공예를, 천연염색 명장 김영남 명인의 '색으로 잇는 전통예술'에서는 자연이 물들인 빛깔을 직접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 자기 명인 유춘봉과 함께한 '나만의 생활자기 만들기' 부스 역시 흙 한 덩이가 세상에 하나뿐인 그릇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하려는 참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소리재에서 진행된 고창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일반 공예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조영하 작가의 전통민화 조개부채 만들기, 배길숙 작가의 모양성 달빛 자개 수정화분 만들기, 박혜숙 작가의 일월오봉병 우드 시어터 만들기, 이선화 작가의 업사이클링 매듭 장식 만들기, 임애진 작가의 전통 다포 만들기가 날마다 새롭게 문을 열며 누구나 부담 없이 전통 공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주문화재단과 함께, 더 풍성해진 프로그램

올해 행사는 전주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한층 다채로워졌습니다. 해뜰채와 보리재에서는 최윤화 작가의 한지 조각보 무드등, 이효정 작가의 원목 한지 압화 LED 조명, 김승연 작가의 수제 한지 줍치 & 줍치 소품 액자 등 전주 지역 공예작가들의 손길이 담긴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한지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 은은한 빛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여자들은 전통 한지 공예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27일 토요일엔 전주 시민 20명이 참여한 '공예로ogie, 거닐다(고창편)' 투어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서해랑길 41코스 고창갯벌을 따라 걷고, 바다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고, 신재효판소리박물관과 고창읍성을 해설과 함께 둘러본 뒤 천연염색·전통매듭 체험까지 이어진 이 프로그램은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 공예작가가 한자리에, 공예마켓

고창읍성 대표소 옆에서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작가유랑단'과 함께하는 공예마켓이 펼쳐졌습니다. 고창, 광주, 전북, 경기,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개 팀의 공예작가들이 패브릭, 주얼리, 손뜨개 소품, 칠보공예, 가죽공예, 도자기, 스테인드글라스, 전통자수, 목각인형 등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며 방문객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고창읍성의 고즈넉한 성곽을 배경으로 늘어선 공예마켓 부스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두드리고 깎고, 온 가족이 즐길 목공 체험과 전통놀이

해뜰채 옆 부스에서는 토카르마데라 목공방과 함께하는 '똑딱똑딱 전통마당'이 사흘 내내 쉴 틈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고창의 대표 캐릭터 모양 칼림바, 소반, 스톨을 직접 두드리고 깎아 완성하는 이 체험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잔디광장 일원의 전통놀이체험존에서는 투호, 윷놀이, 대나무 물총 등 우리 조상들의 놀이를 온몸으로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무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은 휴게쉼터 그늘막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거나 이동형 푸드트럭에서 시원한 음료와 먹거리를 즐기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공연과 이벤트로 더욱 즐거웠던 시간

잔디광장 등에서는 지역예술인들의 오키리나 공연을 시작으로, 굿패취농의 신명 나는 고창농악 길놀이,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마술·버블 공연, 그리고 색소폰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사흘 내내 행사장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이벤트 부스에서는 SNS 팔로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게임이 진행되어 틴케이스, 비눗방울, 양우산 등 다양한 굿즈가 방문객들의 손에 전해졌고, 굿즈샵 부스에서는 고창의 대표 캐릭터 상품이 판매되며 지역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황토재 위 체험공간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가가호호 예술놀이 터’가 운영되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창의 문화자산, 더 널리 더 오래

참여한 방문객들은 “이런 좋은 행사가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좋고 고창 홍보도 돼서 좋아요”, “다양한 공예체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만들기 체험의 완성도가 좋아요 최고예요”, “직원분들이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등 다양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는 이번 행사에 대해 “고창이 가진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는 일상 속 쉽고 전통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장이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말처럼 사흘간 1,3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진 이번 행사는 전통과 자연, 공예가 어우러진 고창만의 색깔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확인된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주문화재단을 비롯한 인근 지역과의 협업을 넓혀가며 고창의 전통예술과 공예문화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 오래,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 한지혜



고창의 전통문화, 전국 우수사례가 되다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지역문화 우수사례 선정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지난 6월 8일 서울에서 진행된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지역문화 우수사례 공모」 PT 심사를 통해 ‘지역문화진흥원장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광역·기초 문화재단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고창 전통예술 체험마을’ 운영 사례로 사업 기획의 독창성, 성과, 지속가능성, 지역문화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공식 시상식은 지난 7월 9일 강원 속초시 엑스포타워 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개막식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 우수사례 특별상(지역문화진흥원장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한국지역문화지

(사)한국광역문화지

(사)전국지역문화지

위원



전통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과 있다

고인돌·판소리·고창농악·갯벌 등 유네스코 유산을 두루 갖춘 고창이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고창읍으로 집중되며 유산과 주민의 삶이 점차 멀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이 공간을 통해 명인·명장의 창작 활동과 주민의 일상을 잇는 문화 구심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전통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전통과 자연스럽게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마을의 핵심 취지였습니다.

개관 후 128일간 총 98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누적 방문객 30,000여 명, 체험 프로그램 직접 참여자 2,500명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 공예주간’은 4일간 1,200명이 방문해 공예 마켓에서 512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팼페라와 고창농악이 어우러진 ‘한복문화주간’에는 1,000명이 참여해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전통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비수기 극복을 위해 기획한 ‘겨울 별빛마을’은 20일간 8,000여 명을 유치하며 SNS 게시물 조회수 25만 회를 기록하며

새로운 야간 관광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단순한 방문객 수치를 넘어, 전통예술이 지역 주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할머니와 손녀가 같은 한복을 입고 체험장에 앉고, 청년이 팼페라와 농악 사이에서 카메라를 들었다”며 “전통을 통로로 더 넓은 세계와 이어질 수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이러한 풍경이야말로 전통예술체험마을이 지향해온 방향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통예술체험마을을 지역민과 창작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개방형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명인·명장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창의 전통 문화가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문화 인력 양성 및 활용사업

'나의 프로필'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고창평생학습관 2층 동아리실에 문학,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가진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문화예술인들이 한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요즘 예술가에게는 창작 활동만큼이나 자신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표현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예술가인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리고 기록할 수 있는가”가 곧 예술 활동의 또 다른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나의 프로필’은 고창의 예술인들의 단순한 이력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활동을 기록하고 AI를 활용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글쓰기부터 AI 활용, 온라인 프로필 페이지 제작, 전문가의 프로필 사진 촬영까지 자신을 종합적으로 ‘브랜드화’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퍼스널 브랜딩의 개념을 배우고 셀프 인터뷰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적 키워드를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작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다져진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NotebookLM이라는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자료를 입력하고





나만의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 활동의 새로운 파트너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리틀리(Litt.ly) 활용법을 익혔습니다. 리틀리는 SNS, 포트폴리오, 연락처 등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온라인 프로필 페이지로 통합해주는 서비스로,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보고 동료 예술가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글과 이미지로 정리한 다음에는, 고창읍성(자연), 한옥마을(전통), 문화의전당(현대) 등 각기 다른 배경에서 저마다의 장르에 어울리는 프로필 사진을 전문가의 손길로 촬영하며 자신의 이야기에 어울리는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자신의 슬로건과 AI로 만든 인포그래픽, 리틀리 프로필 페이지, 야외에서 촬영한 프로필 사진까지 모든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동료 예술가들과 강사진 앞에서 “나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I 도구를 통해 자기 이해가 깊어졌어요. 처음으로 제작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 예술가들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등의 참여자 소감이 이어졌고, 절반 이상이 심화과정 개설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고창의 문화예술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얼마나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고창을 배경으로 촬영한 프로필 사진, AI로 만든 인포그래픽, 리틀리 페이지에 담긴 자료들까지, 이 모든 것이 고창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정리한 활동 이력과 결과물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의 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습관이 곧 예술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참여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심화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활동증명 신청 지원과 온라인 프로필 활용법 등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널리, 더 오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창 소응포 봉수 국가사적 지정 학술세미나

소식

고창군

고창문화관광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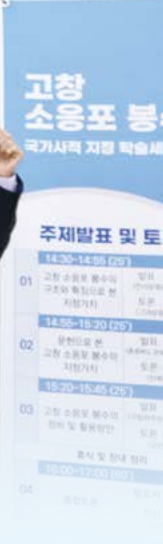
치유문화도시

고창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6. 3. 26.(목) 14:00 - 17:00

고창 신재효판소리공원 체험관



‘고창 소응포 봉수’ 학술 세미나

지난 3월 26일, 고창 신재효판소리공원 체험관에서 「고창 소응포 봉수 국가사적 지정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고창군과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치유문화도시 고창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한 이 자리에는 전국의 봉수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고장의 숨은 유산, ‘소응포 봉수’에 담긴 가치를 함께 짚어 보았습니다.

봉수(烽燧)는 조선 시대의 국가 통신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밤마다 횃불 하나로 “오늘도 별일 없습니다”라는 평안의 신호를 서울 목멱산(남산)까지 릴레이로 전달했고, 외적이 침입하면 횃불 숫자를 늘려 위급함을 알렸습니다. 고창 소응포 봉수는 여수 돌산도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제5로 직봉’ 노선의 26번째 봉수로, 세종 이전부터 봉수제가 폐지된 1895년까지 약 400 여 년간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위치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이 유적은,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 옛 지도와 항공사진, 현지 답사를 대조한 끝에 해리면 방축리의 ‘봉호재’(해발 117m)에 있음을 밝혀냈고, 2025년 마침내 첫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발굴 결과, 지름 약 7~8m의 원형 ‘연대’(횃불시설)와 이를 감싸는 ‘호’(방어용 도랑)가 뚜렷이 확인되었고,



연대 내부에서 조선 전기 분청사기 조각까지 출토되어 조선 건국 초기부터의 가동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연대+호’ 구조가 흥덕·부안·영광 등 인근 전라도 봉수들과는 다르고, 오히려 경주·기장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연변봉수와 닮았다는 점입니다. 서해안 끝자락 고창에 어떻게 동해안 스타일의 봉수가 들어섰는지, 아직 명쾌한 답은 없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흥미로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영민 연구위원(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 소응포 봉수의 위치·구조와 지정 가치를, 김주홍 위원(충청북도 문화유산 전문위원)이 봉수군의 삶과 제도적 의미를, 이규훈 연구관(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이 지정 이후의 정비·활용 방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경철(고대문화재연구원), 김병남(전북대), 박장근(군산대)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추가 발굴과 태양광 레이저 아트 등 참신한 활용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600년 넘게 서해를 바라보며 신호를 전하던 소응포 봉수. 이제 막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 이 유적은, 국가사적이라는 새 이름을 딴고 고창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 한지혜





지역을 넘어 함께 만드는 전북 관광 전북권 기초관광재단 업무협약

광역적 다변화 추세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 및 기존 정책의 한계성

최근 외래 및 내국인 관광객의 통행 패턴은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적 방문 모델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관 지자체 간의 유기적 연계 및 복합화를 전제로 한 ‘권역별 광역 순환형 관광’ 형태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다수 관광 진흥 정책이 개별 단위 지방정부 구조 내에 함몰되어 분절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거시적 관점의 공간적 연계성 및 이동 편의성 측면에서 고질적인 한계가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 괴리를 해소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 관계 기관에서는 기존 기초 지자체 단위에 국한되었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사업을 복수의 지자체를 포괄하는 ‘권역형 DMO’ 체계로 전격 개편·전환하고 있다. 이미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속고양(속초·고성·양양)’, ‘강해영(강진·해남·영암)’, ‘옥보영(옥천·보은·영동)’ 등 선도적인 지자체 간 초광역 연합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가시적인 상생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여건 및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의 다각적 의의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와 같은 광역 연계 구조 중심의 관광 진흥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인 거시적 공감대를 일찍이 형성하고 있었으나, 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실질적인 예산·인력의 물리적 결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공동 추진체계 확립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번 양 지역 대표 관광재단 간의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은 단순히 선언적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도시가 보유한 관광 자원과 광역 교통망, 유무형의 인프라를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관광 서비스를 향유케 하는 결정적 교두보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 민선 8기 도정 핵심 가치인 ‘5균 3특(5대 균형발전, 3대 특별자치)’ 시대의 실현을 최전선에서 견인하는 전략적·선제적 공동 대응체계의 모범적 정초(定礎)라는 점에서 그 정책적 의의와 상징성이 대단히 실효적이고 지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옛 사자성어에 고장난명(외손뼉은 홀로 울릴 수 없다)이라 했고, ‘중지성성(여러 사람의 뜻이 모이면 성을 이룬다)’이라 하였다. 글로벌 관광 시장이라는 큰 바다를 마주함에 있어 한 고을의 힘만으로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전북 패싱(소외)이라는 고난을 면치 못할 터였다.

이제 백제의 왕도(익산)부터 발효의 본산(순창), 근대 문화의 보물창고(군산), 예향의 중심(전주·완주), 세계유산도시(고창)이 ‘전북형 광역 관광’이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하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지혜로운 처사다. 관청과 재단의 실무진들은 모름지기 이 협약이 허명(빈 이름)에 그치지 않도록 하여 전북 발전의 큰 과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글 김태환 · 사진 이광민



전북 6개 시·군 관광전담기구 광역관광 협약의 핵심 요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전선의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인 고창, 군산, 순창, 완주, 익산, 전주의 6개 시·군 관광전담기구가 개별 지자체의 행정 격벽(칸막이)을 과감히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규합했다. 이는 전북 관광의 고질적 병폐였던 ‘과객 관광(스쳐 지나가는 관광)’을 극복하고,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결단이다.

각개격파를 넘어선 중형연형

전주 전주 한옥마을의 풍부한 기초 시설(인프라)을 축으로 삼아, 주변 시·군의 독특한 자원을 연결해 외국인마저 대료할 ‘2박 3일 체류형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했다.

고창 모양성제 굿즈(상품)의 성공 노하우 및 공동 캐릭터 축제 제안

군산 여객터미널을 활용한 ‘여행자 플랫폼’과 ‘관광 암행어사’ 제도를 통한 수용 태세 개선

순창 전통 자산(고추장)의 현대적 변용인 ‘떡볶이 페스타’를 통한 관광객 유치 비결 공유

완주 DMO(지역관광추진조직) 사업 우수 경험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문화 프로그램 전략

익산 세계문화유산 내 ICT 융합 전략 및 5월 서동축제·10월 와런(Wow Run) 마라톤의 공동 참여 요청

실질적 협업과 결실의 추구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MOU)은 단순히 종이 위에 서명하는 형식적 의례에 그치지 않는다. 실질적인 공동 마케팅 예산을 수반하며, 실무자 간 긴밀한 협의체를 운영해 중간 성과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는 ‘실사구시(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함)’의 정신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백화제방, 문화가 꽃피다:

2026 치유문화도시 고창 신년 문화예술 컨퍼런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백화제방(百花齊放)의 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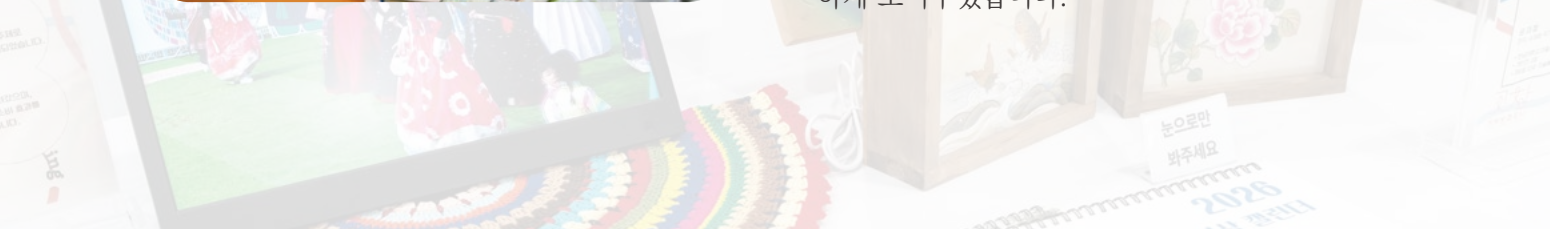
고창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힘찬 출발을 위해 '2026년 치유문화도시 고창 신년 문화예술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4호에서는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전합니다.

백화제방의 의미, 고창의 문화예술이 함께 피다

‘백화제방’은 백 가지 꽃이 한꺼번에 피어난다는 뜻으로, 고창의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가 조화롭게 꽃피우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2026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자리였습니다. 고창군의 문화적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창의 대표 문화공간인 동리국악당에서 진행된 컨퍼런스는 고창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각예술 전시가 병행되어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했습니다. 수채화, 도자기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고창 문화예술의 현재 수준과 가능성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타 지역 사례와 지역 공연,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화

컨퍼런스에서는 타 권역의 성공적인 문화도시 사례 발표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도, 목포, 전주 등 문화도시로 자리 잡은 지역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실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고창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공연도 컨퍼런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하고 수준 높은 무대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치유'라는 주제와 잘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은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창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2026년 사업 추진 방향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향후 고창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년 문화예술 컨퍼런스는 '백화제방'의 이름처럼 고창의 문화예술이 한층 더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2026년, 치유문화도시 고창이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소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글 한인호 · 사진 김민찬



계절마다 새로워지는 고창의 미디어 사계 선운미디어갤러리

선운사로 가는 길, 노란 지붕이 먼저 반갑게 손짓합니다.

13호에서 '고창의 7가지 보물'을 만나는 15분의 디지털 여정을 소개했다면,
14호에서는 계절마다 새로워지는 선운미디어갤러리의 매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한 번 다녀간 관람객들이 "또 오고 싶다"며 재방문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봅니다.

계절을 따라 변하는 살아 있는 갤러리를 준비

선운미디어갤러리는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고창의 사계절을 실시간으로 담아내는 '살아
있는 미디어 캔버스'입니다.

봄에는 선운산의 연녹색 새싹과 함께 고창갯벌
의 생명이 깨어나는 장면이, 여름에는 푸른 죽림
과 맹종죽의 바람 소리가, 가을에는 이미 유명
한 붉은 단풍과 함께 7가지 보물이 불타오르는
영상이, 겨울에는 눈 덮인 고인돌과 고요한 갯벌
의 서정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외벽의 대형 벽화와 후면 플랜트월은 조명
과 미디어 영상과 어우러져 낮에는 사진 명소로,
밤에는 은은한 야간 경관 명소로 변신합니다. 13
호에서 '첫 만남'의 설렘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다시 만남'의 깊이를 느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고창을 발견할 수 있도록
'치유'가 있는 고창 콘텐츠를 여러분께 선사하겠
습니다.

마음의 힐링, 여운이 남는 장소

"처음엔 선운사만 보러 왔는데, 나갈 때는 고창
전체를 품고 가는 기분이에요."

많은 관람객들이 공통으로 남기는 후기입니다.
15분 동안의 영상은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고창의
유산을 '몸으로 느끼는' 체험입니다. 바닥 스크린
위로 밀려오는 갯벌 파도, 사방을 감싸는 입체
사운드, 그리고 7가지 보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클라이맥스는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해외 관광객들의 만족
도가 높아, "아이들이 지루해할까 걱정했는데
15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운미디어갤러리는 고창을 찾는 모든 이에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여행지'가 되고 있습니
다. 노란 지붕 아래, 사계절마다 새로운 얼굴
로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서 고창의 진짜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촬영 중인 고창 사계절, 더 깊어지는 이야기

고창문화관광재단은 현재 ‘고창 四季’(사계) 영상 촬영’을 진행하여 선운미디어갤러리의 영상을 한층 더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7가지 보물 영상에 더해 고창 전역의 대표 명소의 사계절 모습을 새롭게 촬영·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무장읍성의 고풍스러운 성곽이 봄꽃과 어우러진 모습, 병바위의 웅장함이 여름 바다와 대비되는 장면, 고창읍성의 단청이 가을 하늘 아래 빛나는 풍경,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의 겨울 안개와 철새들까지. 고창갯벌의 생생한 변화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영상들이 순차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7가지 보물을 넘어 고창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운미디어갤러리는 단순한 미디어아트 공간을 넘어, 고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과 숨겨진 명소들을 사계절 감성으로 연결하는 ‘고창 종합 디지털 가이드’로서의 역할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사진 한인호



고창이·모량이·모로모로 고창 캐릭터, 관광 굿즈로 다시 태어나다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에
공식 기념품숍 개관 추진



작년도 고창군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취 기존 지자체 상징물이었던 ‘모로모로’ 캐릭
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리브랜딩 작
업을 추진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변화가 아
니라 고창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캐릭터
에 담아내기 위한 시도였다. 특히 천년고찰 선
운사를 모티브로 한 친근한 이미지의 ‘고창이’
와 고창 고유의 설화와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
은 ‘모량이’를 새롭게 구축하며, 고창군은 스토
리와 개성을 갖춘 총 3종의 대표 캐릭터 라인
업을 완성했다. 이들 캐릭터는 젊은 세대와 가
족 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
며 고창 관광 브랜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긍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고창문화관광재단은 3종의 고창군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굿즈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한 기념품 제작을 넘어 실용성과 소장 가치를 갖춘 상품 라인업을 기획하고, 이를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유통 전략을 펼쳤다. 특히 고창군청 세계유산과가 주관하는 대표 축제 ‘모양성제’를 비롯해 재단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창 별빛마을’ 등 관내 주요 축제와 행사 플랫폼을 활용한 현장 마케팅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당초 설정한 연간 매출 및 브랜드 노출 목표의 200% 이상을 달성하며 고창군 캐릭터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입증했다.

전년도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발판 삼아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팀은 2026년 하반기부터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내에 고창군 공식 캐릭터 기념품숍을 정식 개점하고 상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표 캐릭터 ‘모로모로’ 중심의 상품 구성과 유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인지도가 높아진 ‘고창이’와 ‘모랑이’까지 아우르는 고창군 고유의 캐릭터 IP를 적극 활용해 보다 풍성한 굿즈 비즈니스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열 기념품숍은 고창읍성 공영주차장과 접근성이 뛰어나 주말과 축제 기간 관광객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이끄는 집객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창읍성 전시관과 연계해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고창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관광산업팀은 한옥복합문화공간의 인프라를 활용해 고창군 브랜딩을 고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첫 번째 실행 과제로는 고창읍성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고창읍성 피크닉데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고창읍성 내부의 넓은 잔디밭을 감성적인 피크닉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및 청년 아티스트와 협업한 버스킹, 마당극, 퓨전 국악 등 소규모 야외 공연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성곽을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현장에 머무르며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문화관광 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고창읍성 주변의 숨은 관광자원인 동문권 ‘꽃정원’, ‘청년마을’, 서문권 ‘전통예술 체험마을’ 등과 연계한 권역 상생 협력 사업이다. 현재 고창읍성은 북문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반면, 동문과 서문 권역은 매력적인 자원을 갖추고도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관광산업팀은 새롭게 조성되는 굿즈숍과 한옥복합문화공간을 중심 거점으로 삼아 동문과 서문으로 이어지는 관광 테마 루트와 스탬프 투어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동선을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고창읍성 일대 관광권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글 · 사진 김태환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황토재 전통자기 명인 유춘봉 선생

황토재에서는 도자기의 역사와 고창 도자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타래·판·물레작업으로 생활자기를 만듭니다. 완성 작품은 소성 후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레체험

운 영 요 일 : 월,화,수,목,금,토
소 요 시 간 : 2시간
체험비개인 : 4만 원 / 단체: 3만 원
연 령 제 한 : 만5세이상

일반체험

운 영 요 일 : 월,화,수,목,금,토
소 요 시 간 : 2시간
체험비개인 : 3만 원 / 단체: 2.5만 원
연 령 제 한 : 만5세이상

도자기 그림 그리기

운 영 요 일 : 월,화,수,목,금,토
소 요 시 간 : 2시간
체험비개인 : 3만 원 / 단체: 2.5만 원
연 령 제 한 : 만5세이상

풍요재 전복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박미애 선생

풍요재에서는 전통자수와 매듭으로 생활 소품을 만들고, 궁중·민간자수와 유물 재현까지 단계별로 배우며 취미부터 전문 교육까지 폭넓게 경험합니다.



상보 수놓기

운 영 요 일 : 월,화,금,토
소 요 시 간 : 2시간
체험비개인 : 3만 원 / 단체: 3만 원
연 령 제 한 : 초등이상 60대까지

찾잔받침

운 영 요 일 : 월,화,금,토
소 요 시 간 : 2시간
체험비개인 : 3만 원 / 단체: 3만 원
연 령 제 한 : 초등이상 60대까지

전통주머니

운 영 요 일 : 월,화,금,토
소 요 시 간 : 2시간
체험비개인 : 3만 원 / 단체: 3만 원
연 령 제 한 : 초등이상 60대까지

키고리

운 영 요 일 : 월,화,금,토
소 요 시 간 : 2시간
체험비개인 : 2만 원 / 단체: 2만 원
연 령 제 한 : 초등이상 60대까지

솔향재 천연염색 명장 김영남 선생

솔향재에서는 쪽·무지개 염색과 에코프린팅으로 스카프와 망기 등을 만들며, 자연과 공존하는 전통 염색을 배우고 전문 교육까지 참여합니다.



쪽 산수화 염색

운 영 요 일 : 수,목,금,토
소 요 시 간 : 2시간
체험비개인 : 3.5만 원 / 단체: 3만 원
연 령 제 한 : 만7세이상

망기 실크스크린 염색

운 영 요 일 : 수,목,금,토
소 요 시 간 : 2시간
체험비개인 : 2.5만 원 / 단체: 2만 원
연 령 제 한 : 제한없음

무지개 염색

운 영 요 일 : 수,목,금,토
소 요 시 간 : 2시간
체험비개인 : 3.5만 원 / 단체: 3만 원
연 령 제 한 : 만7세이상

에코프린팅 염색

운 영 요 일 : 수,목,금,토
소 요 시 간 : 3시간
체험비개인 : 5만 원 / 단체: 5만 원
연 령 제 한 : 제한없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수필, 미담이나 소식지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을 읽고 난 후의 의견, 제언
등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다른 매체에 실린 같은 내용의 글은 접수하
지 않습니다.

원고 분량(200자 원고지 기준)
수필, 미담 등 독자투고 3~5매,
의견 및 제언 2~3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채택되신 분은 12월에 발행되는
[고창! 문화를 읽는 창] 15호에
수록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 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 3층
이메일: Seolhe@gctf.or.kr
문 의: 070-4914-1604



이름 맞추기 EVENT

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래 사진은 고창군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세 캐릭터의 이름을 순서대로 맞춰 주세요!



①



②



③

참여방법 하단의 QR 코드를 찍어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 보내기
참여기간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당첨선물 고창군 상징 캐릭터 키링 3종 세트(10명)





풍경의 순간, 문화의 기억

바람은 대숲을 지나고, 이야기는 마음에 머문다.

소식지<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窓)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 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단문 홈페이지 <http://www.gctf.or.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gctfl11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changgct>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9 772733 997001
ISSN 2733-9971